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소식지

제 4 호

백 리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 장 이 선 영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15년 4월 19일

주소 : 사천시 정동면 화암리 259-1 | http://sachonlee.net |

인사말씀

조원사는 종인의 화합과 대동단결의 구심점



대중회 회장 **李 善 永**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외 종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시조공 이하 6세 7현을 봉안한 조원사에 온 종인이 함께 모여 제향을 올리게 됨을 후손으로서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종족과 혈족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아닐 수 없으며, 조원사는 이러한 감동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전 1993년 10월에 기공하여 5년간의 공기를 거쳐 창건한 조원사는 부봉산(浮峰山) 기슭 사역(祠域) 약 천평의 부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당시 총공사비 약 6억 원이 소요된 대역사이었습니다. 경덕문(내삼문), 추원문(외삼문), 일원재, 관리사 등도 갖추어져 있고, 세덕비문에는 이웃 문중에서 이러한 대역사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종인 여러분! 조원사의 창건은 타 문중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많지 않은 전국 각지의 온 종인들이 단합된 힘으로, 총력을 다 해서 일구어 낸 우리 문중의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조원사는 시조사우로서 제향을 받드는 곳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남긴 고귀한 정신을 이어 받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신적 지주로 삼기 위함이며, 후손들에 대한 종족의 번영과 뿌리의식을 고취하는 데 문중의 중심이 되고자 함이며, 온 종인의 화합과 대동단결의 구심점이 되고자 함입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살다보면 사람들은 봉사보다는 자신의 편익에만 몰두하기 쉽고, 자칫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편하고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며, 그것은 사회에 봉사하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뿌리를 알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편하고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종인들은 해마다 본관 사천에 있는 조원사에 모두 모여 시조공 이하 6세 7현의 제향을 받들고, 선조의 훌륭한 유적과 정신을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주고 이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며, 아직까지 덮여 있는 선조의 유적을 찾아내고, 왜곡된 역사가 있으면 이를 바로잡도록 화합과 소통으로 대동단결할 때입니다. 이는 후손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중회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부봉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원사는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잘 보존 관리하여 후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온 종인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마다 부봉산의 정기(精氣)가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5년



(사)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회장 **장 창 현**

반갑습니다.

을미년 한해도 3개월이 지나 꽃피고 새우는 온누리가 생기찬 화창한 봄입니다. 회원님과 가족 모두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 평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인이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회장을 맡아 구암 선생의 학문과 치적을 천양하는데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회를 운영한지 어느덧 5년이 지난 임기 1년을 앞두고 오늘도 열정을 갖고 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분의 성원과 협조로 구계서원을

조금씩 발전하고 정착하는데 보람을 갖고 미력이나마 노력이 헛되지 않게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정기총회시 제3차로 정관을 전문 개정하여 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 동안 회 운영에 불편한 조항을 이번 2015년도 정기총회에 네 번째로 정관을 개정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원만한 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 제12조 임원선임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인사를 임기 완료 전에 이사회의 추대로 총회에서 추천한다.” 로 개정하였고, 제14조 “임원의 선임제한” 조항인 통합당시 합의사항인 양 문중에서 각 2인까지만 선임하는 이사와 회장 및 감사의 직위에 선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제14조 조항을 삭제하였고, 문중 임원과 종원의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게 임원선임을 개방하여 문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는 구암선생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물론 현실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면서 금년 구암 이정선생 제44주기 춘향제례가 4월 11일 토요일 11시에 구계서원 구암사에서 봉행하오니 많은 참배하시고 제6회 “구암제” 행사도 도농 통합 20주년의 시민화합의 행사로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와룡문화제와 시민의 날 행사가 함께 5월 8일부터 시작되며 구암제는 5월 10일 10시에 전국 유림 한학자 260여명이 참여하는 전국에서 가장 큰 과거시험 재현 한시 백일장 행사로 거행됩니다. 오셔서 뜻 깊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구계서원과 대관대유계회가 통합되어 운영되어 온지도 어언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래지향적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천이씨 대중회 이선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종인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문중의 적극적이고 열정으로 선생유업에 참여하여 앞날에 지속적 성원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 대중회 임원회의

- 일시 : 2015년 3월 14일(토)
- 장소 : 조원사 일원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 구암 춘계제향 참석

- ▷ 일시 : 2014. 3. 27.(토)
- ▷ 장소 : 구계서원
- ▷ 참석 : 이사 13명
- ▷ 주요내용 : 이날부터 퇴계선생 복위하여 제향



2. 제5회 구암제 참관

- ▷ 일시 : 2014. 4. 11.-4. 12.
- ▷ 장소 : 선진공원
- ▷ 참석 : 회장 및 많은 종인 참가



2015년 대종회 임원회의

• 일시 : 2015년 3월 14일(토)
• 장소 : 조원사 일원재



3. 2014년 춘계제향 봉행

- ▷ 일시 : 2014. 4. 20.(일)
- ▷ 장소 : 조원사
- ▷ 유사문종 : 백인제 고읍문종
- ▷ 참석 : 종인 100여명
- ▷ 향춤탁대 수입금 : 5,330,000원



4. 정기총회 주요결의사항

- ▷ 신입회장 및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구성
- ▷ 조원사 관리규정 채택
- ▷ 종보 부리 3호 발행, 이후 계속해서 발행하기로 함
- ▷ 장학기금조성 계속사업 추진
- ▷ 제5회 구암제 후원 2백만원 승인
- ▷ 구암대상 전국 시조경창대회 후원 30만원 승인



5. 이사회 개최

- ▷ 일시 : 2014. 5. 17.
- ▷ 장소 : 조원사 일원재
- ▷ 내용 : 임원 위촉
 - 부회장(당연직) : 이종수(24세, 부산화수회 회장)
 - 총무국장 : 이우식(25세)
 - 감사 : 이영섭(26세, 전임 총무국장)
 - 이사 : 이영춘(25세, 부산)
 - 신입 이사 위촉 : 이기호, 이준용(25세), 이남근(정동면장), 이영근(개천면장)
 - 이영춘(사천농업센터)



6. 구암 이정선생 학술세미나 참석

- ▷ 일시 : 2014. 12. 13. 오후 2:30
- ▷ 장소 : 사천문화원(삼천포) 대강당
- ▷ 제1주제 : 구암 이정의 경물시를 통해 본 시작의 방향
- ▷ 제2주제 : 16세기 중엽 순천부사 이정의 성리학 진흥
- ▷ 좌장 및 사회 : 정우락(경북대학교), 이은식(문학박사)
- ▷ 참석 : 부산화수회(회장 이종수) 회원 및 많은 종인



7. 대관대 복원사업 진행사항

- ▷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에서 대관대서재 복원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본 지역은 국가 문화재가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음
- ▷ 사천문화원에서 문화재구역 확대지정 신청서를 보완하여 재신청(2014.10.15.)
- ▷ 경남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오면 사업비 신청 예정

8. 구암묘소 문화재 추진사항

- ▷ 2014. 6. 21. 구암묘소 문화재 신청 및 비문 탁본 협의 (진주국립박물관 임학중 실장외 2명, 대종회 회장, 고문, 이사 등 다수 현장 입회)
- ▷ 2014. 7. 26.-27. 탁본
- ▷ 2014. 11. 28. 비문 탁본비 지출, 액자 및 족자 제작비 미지급
- ▷ 2014. 12. 5. 우소재 가실문중에서 액자 및 족자 제작비 찬조
- ▷ 2015. 1. 17. 구암묘소 앞 향로석 도난 발견(우소재 이영춘 이사)
- ▷ 2015. 1. 20. 도굴신고(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 ▷ 2015.1.9.-1.17. 도난시기 추정

9. 효부비석-정려각(旌閭閣) 비문 이건기 발견

- ▷ 제보자 : 양우석(사천시 용강동)
- ▷ 최초입석년도 : 숙종(조선 제19대) 갑신년(1704년)
- ▷ 효부 확인 : 대동보 2권 65페이지 참조
- ▷ 이건일 : 1939년 12월 4일
- ▷ 비석장소 : 사천시 용강동 와룡저수지 도로변
- ▷ 비석명 : 효부안동권씨지려(孝婦安東權氏之閭)
- ▷ 확인 : 2015.2.17. 이영규 고문 및 이승렬 이사

2015년도 업무계획서의

1. 구암 춘계제향 참석

- ▷ 제향일 : 2015. 4. 11.(토)
- ▷ 장소 : 구계서원
- ▷ 대종회 및 많은 종인 참배하기로 함.
- ▷ 특히 본회 이선영 회장이 종헌관으로 제향에 참여한다.
- ▷ 참고 : 초헌관은 윤유덕 사천향교 전교, 아헌관은 장병석 사천문화원 원장

2. 시조공 제향에 관한 건

- ▷ 제향일 : 2015. 4. 19.(일) 11:00
- ▷ 장소 : 조원사
- ▷ 유사 : 우소재 대산문중
- ▷ 유사순번 확인 : ① 성균진사 대곡문중
② 첨정공 종선문중
③ 성균진사 화암문중
④ 백인재 고읍문중
⑤ 우소재 대산문중 순으로 함
- ▷ 홀기 : 알기 쉽도록 재검토 함
- ▷ 제수비 예산 : 2,200,000원



3. 제6회 구암제 참관의 건

- ▷ 일시 : 2015. 5. 10.(일) 10:00
- ▷ 장소 : 사천시청 앞
- ▷ 지원예산 : 1,000,000원
- ▷ 많은 종인 참관하기로 함

4. 감사패 수여에 관한 건

- ▷ 수여대상자 : 장병석(사천문화원장), 장창현(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회장) 이은식(구암이정연구소장)
- ▷ 수여조건 : 구암 이정 선조의 유적과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공헌
- ▷ 수여일시 및 장소 : 2015. 4. 11.(토) 10:00, 구계서원 춘계제향 시

5. 2014년도 미납 대종회비 납부 협조

- ▷ 대종회는 시조 사우인 조원사를 관리하고, 시조공을 비롯한 선조의 제향을 받드는 일을 하고 있음
- ▷ 그 뿐만 아니라, 선조의 업적을 보존-발굴하고 번역하여 후손에 물려주기 위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을 하고 있음
- ▷ 4년 전부터 임원 회비제로 하여 운영, 지난 해 2월 이사회에서 재확인
- ▷ 임원회비는 대종회의 발전과 종인의 친목도모, 후손의 부리익식 고취에 사용
- ▷ 2014년도 회비를 2015. 4. 15. 결산일 전까지 납부 바람
- ▷ 연회비 : 부회장 300,000원/년, 이사 100,000원/년
- ▷ 회비납부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351-0698-3320-43 사천이씨 대종회

18세 선조모 효부 안동권씨 정려각 비문 발견

대중회 자료

65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必諱世輝 男 時泰 子 震光 孫 三鼎 曾孫 東根 孫 春得 孫 昌晝

우리 문중의 영광인 참지공 파 18세 선조모 안동권씨 정려각(旌閭閣) 비문이 금년 2월 17일 사천시 용강리(별리촌)에서 발견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려란 3절인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나라에서 표창하던 일로 오늘날 훈장과 같다.

안동권씨는 18세 선조부 진광(震光)의 아내이며, 안동권씨 희적(希迪)의 딸이다(사천 동성씨 대동보 2권 65면). 이 비문에는 안동권씨가 동성이씨 집안에 시집은 뒤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이웃의 칭송이 자자하던 중, 어느 날 새벽 첫닭이 울 때 일어나서 막 머리를 빗고 있는데 시아버지(時泰, 17세, 1734년 갑인생)가 변소에 가서 오지 않음에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달려가 보니 거기에 호랑이가 있었다. 이에 치마로 호랑이를 덮쳐 품어 안으니 호랑이는 머리를 숙이고 떠나가고, 시아버지는 아무 탈 없이 온전하게 소생했다. 고을과 도(道)에서는 이러한 효성을 상소하니 1704년 숙종 임금이 처음으로 정려문을 명하여 용강리에 한 칸의 정려각을 세웠는데, 이 정려각은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지고 매몰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2백여 년 뒤인 1939년 12월 4일 마을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돈을 모아서 지금의 별리촌에 옮겨 세웠다고 한다. 또 비문에는 효부의 음덕으로써 말할 것 같으면 의당 반드시 그 집안이 크게 번창해야 할 것인데, 그 자손들이 영락하고 알려진 바가 없으니 한탄스럽다 하고 있다.

동보에는 “肅廟以孝命旌”이라 하여 숙종이 정려문을 명한 기록이 있고, 18세 震光 선조와 안동권씨 후손은 자 三鼎(19세)→자 東根(20세)→자 春得(21세)→자 昌晝(22세)→

자 福允(23세)→자 有政(24세, 1925년생)→자 祥基(25세, 1960년생)이다. 후손은 소재 불명이다. *부인 진양하씨(慶祚의 딸, 丹池公恢后, 1964년생)

이번 정려각 비문의 관리는 사천시 용강동 거주 양우석씨가 하고 있었으며, 사천문화원의 제보에 의해 이영규 고문과 이승렬 이사가 현장 확인을 했다. 비문 번역문과 사진은 아래와 같다.

[효부안동권씨정려이건기]

아! 효부는 안동권씨 희적(希迪)의 딸이요 동성이씨 진광(震光)의 아내이다. 이씨 집안에 시집은 뒤로 효성으로 시부모를 봉양할 적에 부모의 뜻에 따라 봉양하는 것이 예의에 밝지 않은 것이 없었다.

옛 예기에 따라 행동해서 첫닭이 울 때 일어나서 막 머리를 빗고 있을 적에, 시아버지가 변소에 가서 오지 않음에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달려가 찾아가니 호랑이가 거기에 있었다. 치마로서 호랑이를 덮쳐 품어 안으니 호랑이가 머리를 숙이고 떠나갔다. 시아버지는 아무 탈 없이 온전하게 소생하였다. 참으로 신이하다. 효성이 지극함이며, 하늘이 효부의 효도를 아니 맹수로 하여금 효부의 효도를 드러나게 하는구나.

아! 이와 같이 뛰어난 효도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고을과 도에서 이러한 사실을 위에 올리니 숙종 갑신(1704년)에 처음으로 정려문을 명하여, 용강리에 한칸의 정려각을 세웠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위로는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어오고, 풀들은 무성하게 자라서 매몰될 지경에 이른 것이 거의 지금에서 수 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 효부의 음덕으로써 말할 것 같으면 의당 반드시 그 집안이 크게 번창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그 자손들이 영락하고 알려진 바가 없으니 한탄스럽구나.

어느 날 왕산 鐘鷹이 그 정려각을 지나가다 둘러보고 한참을 방황하다가 마음이 아프고 감회가 있어서 수습해서 옮길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한지 이미 해가 지났다. 그러다 근년 봄에 별리촌 뒤에 시원하고 탁 트인 곳으로, 길에서는 조금 떨어졌으나 몇 칸 옮겨지를 만한 땅을 얻어서, 마을에서 힘을 보태고 돈을 모아서 일을 시작하지 몇 달 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이 붉은 문을 세우고 단장을 하니 큰 길처럼 환하게 빛이 나서, 이제야 효부의 훈령이 편안하게 있을 곳이 있게 되었다.

동서사방에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얘기하고

칭찬하며 감탄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어찌 다만 조정의 정려포상만 크게 빛 나리요? 바라건대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아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이다.

소화 14(1939)년 12월 4일
월성 이규홍 근기
월성 이은우 근서

퇴계학회 부산연구원 奉化 琴鏞斗 譯

[원문]
孝婦安東權氏旌閭移建記

嗚呼라 孝婦는 安東希迪之女요 東城李氏震光之妻也라 自李氏歸로 孝奉舅姑에 志體之養이 無不昭禮하니라 舊記所載하여 時適 鷄鳴하여 方起櫛縱할새 尊舅如廁한데 被髮往救하니 虎在라 孝也여 天知孝婦之孝하여 而使猛獸도 顯孝婦之孝歟인지 噫라 似此卓孝는 未之前聞이라 鄉道上其事하니 肅廟甲申에 始命旌閭하여 在龍江里에 一間茅屋한데 上雨傍風하고 蕪草荒烟하여 埋沒空山이 殆數百年于茲矣라 以若孝婦之德蔭으로 宜必昌大其門인데 而子孫이 零替無聞하니 可勝嘆哉아 日에 王山鍾鷹이 相過其間하고 彷徨良久하다가 愴然興感하여 撤欲移建하고 點運于心者기 已有年矣라 屆今年春에 占得爽塏於閭里村後에 距遠道爲數式之地하여 捐幫金鳩村하여 命工不數月에 鳥頭赤脚하니 煌煌道周하여 於是乎孝婦之安靈有所矣라 東西行過者 孰不嘖嘖而嗟嘆哉아 此舉豈 惟侈光朝之旌褒哉리오 庶幾萬衆志而爲扶也인저

昭和十四年 十二月 四日
月城 李圭弘 謹記
月城 李恩雨 謹書



부리에 대하여

사랑 속에서
체관과 물관을 통해
들어오는 기쁨은 승화되어
있과 줄기로 자라나
풍성한 나무가 되어 그림자와
목재와 앓을 등걸이까지 아낌없이 준다네.

하지만 사랑의 등 뒤에 서면
슬픔은 스멀스멀 다가오는 그림자가 되어
떨어진 잎사귀처럼 바람에 날리게 된다네.



이병무/시인
(참의공파 26세)

“우째 이런 일이” 도난물을 찾습니다

대중회 고문 **이영규**(성균진사공파 25세)

- ◎ 도난품명 : 구암 이정선생 묘소 향춧대 1점
- ◎ 도난일 :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말 사이
- ◎ 도난장소 : 진주시 정촌면 대추리 산240-2(묘소)
- ◎ 도난물내용 : 본 향춧대는 300년이상 된 묘지의 석물로 특이한 문형으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유물임.
- ◎ 다음 자료를 보시고 동일한 것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 대중회 회장 - 이선영(010-3846-0696)
대중회 고문 - 이영규(010-8524-0252)



2015년 대중회의 감사패 수여

■ 대중회 자료

▷ 수여조건 : 구암 이정 선조의 유적과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공헌
▷ 수여일시 및 장소 : 2015. 4. 11.(토) 10:00, 구계서원 춘계제향에서 수여하였습니다.

1. 대중회 제135호

감 사 패
사천문화원/원장 장병석

귀하께서는 재임 중 조선 중기 대학자이신 龜巖 李楨선생의 유적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구암제 및 구암학술세미나 개최, 구암이정연구소 설치 등을 정성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를 거둠으로써 지역사회의 선비문화 정신을 고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중을 빛나게 하였으므로 이에 전 종인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오래 간직하고자 이 패를 새겨드립니다.

2015년 4월 11일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회장 이 선 영

2. 대중회 제136호

감 사 패
(사)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회장 장창현

귀하께서는 재임 중 조선 중기 대학자이신 龜巖 李楨선생의 유적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구계서원 유지·보존 및 대관대와 대관대 서재 복원 계획을 정성으로 추진하고 특히 구암탄신 500주년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선비문화 정신을 고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중을 빛나게 하였으므로 이에 전 종인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오래 간직하고자 이 패를 새겨드립니다.

2015년 4월 11일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회장 이 선 영

3. 대중회 제137호

감 사 패
구암이정 연구소/소장 문학박사 이은식

귀하께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조선 중기 대학자이신 龜巖 李楨선생의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각 대학의 학자들과 매년 구암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암학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지역사회의 선비문화 정신을 고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중을 빛나게 하였으므로 이에 전 종인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뜻을 오래 간직하고자 이 패를 새겨드립니다.

2015년 4월 11일
사천(동성)이씨 대중회 회장 이 선 영

구암 이정선생 연보(龜巖 李楨先生 年譜)

故 이종철 (백인재공파 26세) 집필, 이영갑 (우소재공파 25세) 까페자료

- 1512년(壬申) 중종7년(1세)(正德 7년)
 - 12월23일(癸亥) 출생, 부 : 담(湛), 모 : 진주 정씨
- 1516년(丙子) 중종11년(5세)
 - 동생 백(柏) 출생(자(字) 정이(貞而), 통덕랑(通德郎), 뒤에 벽사찰방(碧沙察訪)을 지냄)
- 1523년(癸未) 중종18년(12세)
 - 경상도 하과(夏課)에서 장원함, 이 때 쓴 글이 흥문연도부(興門宴圖賦)임
- 1528년(戊子) 중종23년(17세)
 - 성균관(成均館)에 유학함
- 1529년(己丑) 중종24년(18세)
 - 의령심씨(宜寧沈氏)와 혼인
- 1530년(庚寅) 중종25년(19세)
 - 아들 응인(應寅) 출생(자(字) 경원(景元), 호(號) 망구정(望龜亭))
- 1533년(癸巳) 중종28년(22세)
 - 관시(館試, 문과에 나가기 위한 초시 중 하나로서 성균관 유생 중에서 뽑는 자격 시험) 급제
- 1534년(甲午) 중종29년(23세)
 - 김안로(金安老)등의 폭정을 규탄하다가 그들의 미움을 받아 사천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던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를 찾아보고 가르침을 청함
- 1535년(乙未) 중종30년(24세)
 -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을 찾아보고 가르침을 청함.
 -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칠월의 무릉에서 부상(父喪)의 상복을 벗고 모부인(母夫人)을 봉양하고 있을 때 사천에서 선생이 신재(愼齋)선생을 방문하여 "경(敬) 자를 토론하고, 신재로부터 '주경음(主敬吟)' 시(詩) 한 수를 받음
- 1536년(丙申) 중종31년(25세)
 - 2월 28일 근정전에서 치러진 문과별시 장원, 이 때 쓴 글이 축방부(祝芳賦)임.
 - 선무원(宣務郎, 종6품의 하계)을 제수받고 3월 성균관(成均館) 전직(典籍)이 됨(종6품).
 - 7월 군사(軍器寺) 주부(主簿)가 되었다(종6품), 9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되었다(종6품) 가을에 실시한 과거의 감시관(監試官)으로 차출됨
- 1537년(丁酉) 중종32년(26세)
 - 4월 선교랑(宣敎郎, 종6품의 상계)으로 승계(陞階)하였다가 9월 승훈랑(承訓郎, 종6품의 하계)으로 다시 승계.
 - 성절사(聖節使)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옴.
 - 12월 파면됨
- 1538년(戊戌) 중종33년(27세)
 - 10월 형조좌랑(刑曹佐郎)에 제수됨
- 1539년(己亥) 중종34년(28세)
 - 4월 승의랑(承議郎, 종6품의 상계)으로 승계하고 한성부판관(漢城府判官)에 제수됨.
 - 6월 호조정랑(戶曹正郎)에 제수되고, 12월 봉훈랑(奉訓郎, 종5품의 하계)으로 승계함.
 - 당숙 두(斗)가 수서시권(壽瑞詩卷)을 보여줌
- 1540년(庚子) 중종35년(29세)
 - 2월 봉직랑(奉直郎, 종5품의 상계)으로 승계함.
 - 4월 부사직(副司直)에 제수되었다가 6월 예조정랑(禮曹正郎)에 제수됨
- 1541년(辛丑) 중종36년(30세)
 - 1월 영천군수(榮川郡守, 지금의 영주시 榮州市)에 제수되어 안동진관병마동첨절제사(安東鎭管兵馬同節制使)를 겸임함.
 - 6월 통선랑(通善郎, 종5품의 하계)으로 승계함
- 1542년(壬寅) 중종37년(31세)
 - 수서시권(壽瑞詩卷)의 발문을 쓴수서시권(壽瑞詩卷)은 여러 유생이 선생의 5대 조인 취 재(棗)의 장수를 축하한 시를 엮은 책)
- 1543년(癸卯) 중종38년(32세)
 - 6월 통덕랑(通德郎, 종5품의 상계)으로 승계하였다가 12월 조부대부(朝奉大夫, 종4품의 하계)로 승계하였고, 곧 다시 조산대부(朝散大夫, 종4품의 상계)로 승계함.
 - 가을 도산(陶山)으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선생을 방문함, 당시 퇴계선생은 성묘차 고향을 방문 중이었음.
 - 이어서 풍기군수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을 방문함
- 1544년(甲辰) 중종39년(33세)
 - 중종(中宗) 승하
- 1545년(乙巳) 인종(34세)
 - 5월 봉렬대부(奉列大夫, 정4품의 하계)로 승계하였다가 8월 봉정대부(奉正大夫, 정4품의 상계)로 승계함.
 - 농암(農巖) 이현보(李賢輔)가 수서시(壽瑞詩)의 서문(序文)을 씀.
 - 인종(仁宗) 승하
- 1546년(丙午) 명종1년(35세)
 - 2월 중훈대부(中訓大夫, 종3품의 하계)로 승계함.
 - 영천군수의 임기를 마치고 군사감(軍器監) 첨정(僉正)으로 자리를 옮김.
 - 3월 중직대부(中直大夫, 종3품의 상계)로 승계하였다가 5월 통훈대부(通訓大夫, 정3품의 하계)로 승계함.
 - 9월 평안도 속천부사(肅川府使)로 제수되었으나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가까운 고을을 원하여 결국 임지가 선산(善山)으로 바뀌어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제수됨.
 -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구암(龜巖)선생의 선산부사 부임시에 시를 지어 축하해줌.
 - 선산(善山)에서 아은(冶隱) 길재(吉再)의 사당에 참배함
- 1547년(丁未) 명종2년(36세)
 - 2월 직지사(直指寺)와 금오산(金烏山)에 오름
 - 9월 선산부사를 사직하고 귀향.
 - 스승인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선생이 침주에서 사약을 받음
- 1548년(戊申) 명종3년(37세)
 - 7월 지리산 등반.
 - 서울로 승진해 간 주세붕에게 시를 지어 보냄
- 1549년(己酉) 명종4년(38세)
 - 장손 호변(虎邊) 출생(자(字)는 자무(子武), 호는 우소재(迂澗齋), 선무원(宣務郎)으로 군사주부(軍器寺 主簿)를 역임했으며 임진왜란 후 선무원중공신(臣)이 됨)
- 1550년(庚戌) 명종5년(39세)
 - 3월 12일 부친상(父喪).
 - 스승인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 사망
- 1552년(壬子) 명종7년(41세)
 - 3월 부친상 탈상.
 - 6월 공주목사(公州牧使)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함.
 - 8월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에 제수됨.
 - 9월 성균관(成均館) 직강(直講)이 되었다가 곧 사성(司成)이 됨, 이 때 퇴계선생이 대사성(大司成)이었음.
 - 10월 청주목사(淸州牧使)를 제수받음.
 - 손자 곤변(鯁變) 출생(자(字)는 자거(子擧), 호는 백인재(百忍齋), 임진왜란 때 삼천진(三千鎭)의 권관(權管)으로 이순신 장군을 도왔으며 임란 후 선무원중공신이 됨)
- 1553년(癸丑) 명종8년(42세)
 - 이때부터(중종 7)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퇴계선생과 계속 서신을 왕래함(퇴계선생이 구암선생에게 보낸 서신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총 140통임)
- 1554년(甲寅) 명종9년(43세)
 - 7월 선생이 쓴 연평담문(延平答問)의 발문(跋文)을 퇴계선생에게 청함.

- 9월 퇴계선생이 발문(跋文)을 부쳐옴.
- 9월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의 상계)로 승(陞)격됨
- 1555년(乙卯) 명종10년(44세)
 - 전라도를 노략질 하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하여 13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함
- 1556년(丙辰) 명종11년(45세)
 - 1월 청주목사 사임
- 1557년(丁巳) 명종12년(46세)
 - 8월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됨.
 - 판서(判書)를 지낸 조윤선(曹潤孫)의 제문을 지음
- 1558년(戊午) 명종13년(47세)
 - 4월 남명(南冥) 조식(曹植)선생과 지리산 등반.
 - 거제도에 귀양 가 있는 계희(季暉) 정항(丁煬) 황을 찾아갔다 다시 남해에 귀양가 있는 계운(季運)을 위해 이과 같이 한다"고 함
- 1559년(己未) 명종14년(48세)
 - 6월 승정원(承政院)의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되었다가 7월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으며, 8월 형조참의(刑曹參議)가 되었다가 12월 다시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됨.
 - 이 해 12월 12일 임직하는 날 명종의 명으로 충효신을 관장하는 시 2수를 지음
- 1560년(庚申) 명종15년(49세)(嘉禎39年)
 - 1월 우승지(右承旨)로 승진하여 고향의 모친에게 문안을 감, 이때 임금께서 말하기를 "승지(承旨) 아무개가 돌아가 노모를 뵈라고 하니 음식과 물품을 보내주라"고 하였으며, 경상감사(慶尙監司)에게 글을 내려 "이 사람이 충효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위해 이와 같이 한다"고 함.
 - 2월 좌승지(左承旨)로 승진하였다가, 4월 대호군(大護軍)으로 체임되었고, 5월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제수 받음.
 - 5월 12일 대사간(大司諫, 정3품)을 제수 받고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음.
 - 7월 병 때문에 세 번이나 대사간 직의 사직을 청함, 상호군(上護軍)으로 체임되었다가 곧이어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제수 받음.
 - 8월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되었다가 9월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됨.
 - 12월 3대 주종의 광명(光寧)의 받음.
 - 남명(南冥)선생이 선생의 부친 담(湛)의 묘비명(墓碑文)을 찬술함.
- 1561년(辛酉) 명종16년(50세)
 - 도산(陶山)으로 퇴계(退溪) 선생을 방문함.
 - 경주 서악서원(西岳書院)을 창건함(처음 선도정사 仙道精舍로 이름 지었다가 퇴계선생의 의견에 따라 서악정사 西岳精舍로 함)
- 1562년(壬戌) 명종17년(51세)
 - 2월 조부모 내외분의 묘비를 세움.
 - 봄에 도산으로 퇴계(退溪) 선생을 방문하여 3일간 머물고, 석간대(石澗臺) 등 30여편의 시(詩)를 지음.
 - 이 해 겨울에 다시 계당(溪堂)으로 퇴계선생을 방문하여 5일간 머무름.
- 1563년(癸亥) 명종18년(52세)
 - 1월 퇴계(退溪) 이황(李滉)선생이 수서시권(壽瑞詩卷)의 후발(後跋)을 씀.
 - 1월 경주부윤 임기 마치고 귀향
 - 2월 덕산(德山)으로 남명(南冥)선생을 방문하여 수일간 머무르며 학문을 토론함
 - 6월 형조참의(刑曹參議)를 제수 받았으나 병 때문에 나아가지 못함
 - 9월 다시 호조참의(戶曹參議)를 제수 받고, 11월 승평부사(昇平府使, 지금의 順天市)를 제수받음
- 1564년(甲子) 명종19년(53세)
 - 9월 경현록(景賢錄) 간행
 - 12월 임정대(臨濟堂) 자리(자리)에 경현당(景賢堂) 건축하고 고봉(高峰) 기대승(奇大升)에게 경현당 기문(記文)을 부탁함
- 1565년(乙丑) 명종20년(54세)
 - 8월 임정대에 비를 세우고 비문을 씀
 - 옥천서원(玉川書院) 창건
 - 경현록 발간시 남명(南冥)선생에게 글을 부탁하여 남명선생이 "서경현록후(書景賢錄後)"를 남김
- 1566년(丙寅) 명종21년(55세)
 - 2월 남명(南冥)선생과 단속사(斷俗寺)에서 만남
 - 4월 모친상(母親喪)을 당함
- 1567년(丁卯) 명종22년(56세)
 - 5월 명종(明宗)임금이 승하함
- 1568년(戊辰) 선조1년(57세)
 - 부모 내외분의 묘비를 세움.
- 1569년(己巳) 선조2년(58세)
 - 5월 정관대(靜觀臺)와 구암정사(龜巖精舍) 준공, 이 때 퇴계선생이 구암리에 와서 정관대를 대관대(大觀臺), 구암정사를 대관대서재(大觀臺書齋)로 개칭하게 하고, 동서양재를 거경재(居敬齋)와 명외재(明義齋)로, 외실을 불기당(不欺堂)으로 명명함.
 - 두 손자 호변(虎邊)과 곤변(鯁變)이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함.
 - 6월 부호군(副護軍)을 제수 받음
 - 9월 26일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제수 받았으나 사면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벼슬을 사양함
- 1570년(庚午) 선조3년(59세)
 - 9월 병조참의(兵曹參議)를 제수 받고 또 상호군(上護軍)을 수여받았으나 모두 병 때문에 부임하지 않음
 - 12월 퇴계(退溪)선생이 별세하자 제문(祭文)을 지어 애도함
- 1571년(辛未) 선조4년(60세)(隆慶 5年)
 - 6월 발에 붓기가 났는데 치료에 효험이 없어 결국 7월 16일 별세
 - 8월 선조임금이 제문을 내림
 - 9월 13일 사천 구암리에 장사지냄
- 1611년(辛亥) 광해군3년(만력 萬曆 39年)
 - 구산사(龜山祠)와 구산서원(龜山書院) 창건
- 1641년(辛巳) 인조19년(崇禎14年)
 - 구암진 원진 3권 간행함, 용주(龍洲) 조경(趙經)의 서문, 정두(鄭斗)의 행장,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발문(崇禎13년 작성)이 있고, 시(詩) 94제(題) 127수, 소(疏) 7편, 잡저(雜著) 5편이 수록되어 있음
- 1645년(乙酉) 인조23년(崇禎18年)
 - 구산사 신도비 건립,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구산사신도비명(龜山祠神道碑銘)을 지음
- 1656년(丙申) 효종7년
 - 이가산(李家潭) 등 많은 후학들이 선생의 시호를 청하는 청시소(請諡疏)를 제출함
- 1675년(乙卯) 숙종원년
 - 구계서원(龜溪書院) 사액
- 1676년(丙辰) 숙종2년
 - 구계서원에 선택할 때 숙종임금이 제문을 내림
- 1749년(己巳) 영조25년
 - 속집 2권 간행, 어유성(魚有成)이 발문(1748년 작성)을 씀, 시(詩) 177제(題) 202수, 부(賦) 4편이 수록되어 있음
- 1902년(壬寅) 광무6년
 - 별집 2권 간행, 이만도(李晩濤)의 서문(序文)이 있고, 시(詩) 1제(題) 1수가 수록되어 있음
- 1931년(辛未)
 - 휘철원 구계서원 재건됨

나만의 여행 노하우



생원공파 25세 이 정 석

중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은 우리 인생에게도 던져주는 교훈은 많다할 것입니다. 외따워지만 오늘은 나만의 여행의 노하우에 대하여 언급해 볼까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필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심중팔구는 여행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허나 여행은 준비한 자에게만 기회가 자주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에는 가보지 못한 세상을 찾아 떠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이기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이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첫째 : 사전에 공부를 하여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 아는 것만큼 세상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본인의 경우는 정기적인 테마 여행은 반 년 전에 구상을 하여 준비하는 시간까지 즐기려 하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철저할 것이고 설레이기 때문이죠. 어떤 시절의 소풍 전 날의 들뜬 기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테죠.

둘째 : 언제? 어디로? 무엇을 보러 가시기를 정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명확히 해야 그에 따른 준비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봄엔 꽃, 여름엔 피서, 가을엔 단풍, 겨울엔 눈 등으로 자기에게 맞는 테마 여행 말입니다. 봄상은 4월과 10월달이 춘추 계절로 연중 제일 여행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셋째 : 떠나기 전날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날씨는 흐린지, 맑은지? 기온은 어느 정도인지? 특히 섬엔 갈 적엔 오는 일정 내내의 풍랑과 파고를 잘 살펴야 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떠나는 기분은 설레이기 마련이니까요.

넷째 :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면 여행의 3박자인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미리 파악해 가야 시행착오나 시간 낭비를 최소화 할 수가 있죠. 연결 교통편과 잠자리까지 다해서 말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듯 현지의 제철 별미 즐기기도 또한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나가죠.

다섯째 :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기를 해야 합니다. 빠른 교통수단일수록 스키는 여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면 다반사입니다. 거북이처럼 내 건강을 두발로 두벅 두벅 걷는 여행이 많은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기에 일찍 기상하여 새벽 공기 마시며 길 떠나다면 당신도 길 위의 멋쟁이 집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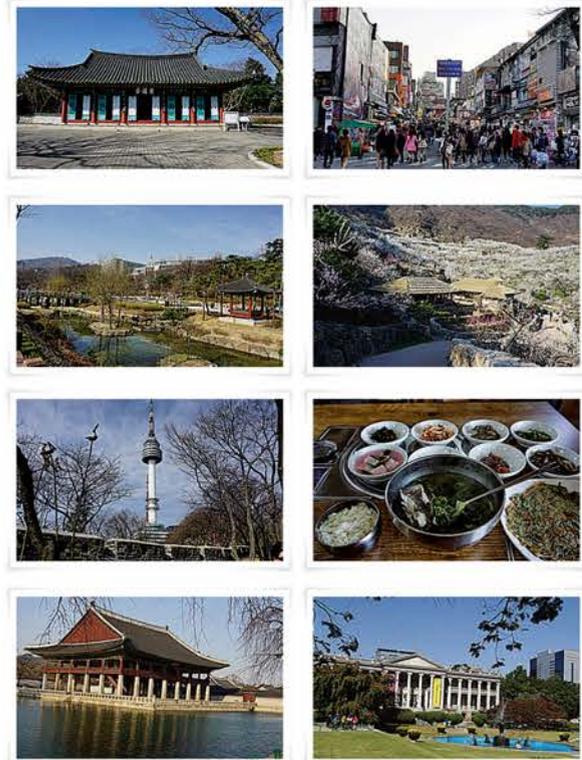
여섯째 : 현지의 모든 것들을 즐겨라. 논어의 공자 왈에 보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두 번 다시의 반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새롭고 단 한 번뿐인 것이죠. 혼자만의 사색과 긍정의 마인드로 세상을 즐겨라. 여행은 부지런한 자만이 하는 전유물일 테니까요.

일곱째 : 여정의 기록을 남겨라.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라. 요즘은 흔한 스마트폰으로 가볍게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지만 블로그나 카카오토티 등SNS를 잘 활용하여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여 남들과 소통하여야 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놀기를 잘해야 행복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결과를 창출하라. 여행커뮤니티나 동호인 카페에서 활발히, 꾸준히 활동을 하여 두각을 나타내면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행이나 맛집 방문 요청이나 아니면 여행기 투고, 공모전 등을 통하여 얻는 전리품도 재미가 쏠쏠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전국의 17개 공모전에 첫 도전하여 10승을 거두기도 해, 연60일 동안의 여행 경비로 일반적인 경우 대비 1/3정도를 사용하기도 했구요. 주로 열차는 코레일, 오·만찬과 연극 등은 업체 협찬을 받아 진행하며, 투고나 공모전 상금 등으로 충당을 하는 편이죠. 금년초의 한양 2박3일은 5만원, 지자체나 카페 팸투어인 경우는 1박2일이나 2박3일의 경우 1만원 이하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방법을 찾아 나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 없다, 돈 없다 하는 변명이나 핑계는 저 강물에 던져버리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 가려 하질 말고 마음이 울렁거릴 때 떠나라 ~~~. 그러다보면 당신은 길 위의 멋쟁이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맺습니다.

2015. 4월의 아침에



내 고향 가실골



우소재공파 25세 이영준

나의 고향은 사천시 정동면 소곡리 가곡이다. 행정구역 정식 명칭인 가곡보다 순수한 우리말인 가실골이 훨씬 정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내 기억 한 구석에 또렷하게 자리 잡은 이름이건만 자꾸만 불러보아도 생소하게 느껴짐은 무슨 까닭일까? 오래도록 찾지 않았다고 토라졌을까? 아니면 저토록 부서지고 깎이도록 내버려둔 잘못일까? 해마다 성묘나 묘사 때가 되면 고향길을 하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정책에 의해 그 아름답던 논이며 밭이며 보금자리였던 집들은 다 철거되거나 몰속에 잠겨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고 그 많은 이웃들도 정든 고향을 떠나 빨빨이 흩어져 제각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영원한 삶의 터전이라 여겼던 이곳은 거대한 저수지로 변하여 맑은 물만 가득안은 채 웅장한 자태만 한껏 뽐내고 있으니 말이다.

대신 산허리에는 아스팔트로 말끔히 포장된 신작로가 생기고 그렇게도 낡아들기 힘들었던 고갯길도 새롭게 단장돼 자동차를 타고 삼천포까지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장차 이 저수지도 관광지로 개발되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얼마나 좋으련만...



어릴 적 마을 앞에는 제법 큰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개울은 사천시와 고성군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했다.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천과 고성군민들이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이상하고 우습기도 한 일이었다.

햇볕이 짙게 내리쬐는 여름날에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 개울에서 목욕도 하고 해염도 치면서 더위를 쫓고, 추운 겨울날에는 썰매 타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께 야단을 맞은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덕분에 해염치는 법은 돈 들지 않고 일찍 배울 수가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저마다 비교우위의 타성에 젖어 살고 있다. 보는 이가 없어도 더 좋은 것, 편한 것, 맛있는 것, 재미있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자신을 몰아넣어 버린다. 진정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묻혀서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고향 앞에 서면 그 타성을 벗고 '순수했던 아무개 집 아들'로 돌아와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고향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니겠는가? 내 부모가 못 낳어도 남과 견줄 수 없듯이 고향도 마찬가지다. 숙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향수를 제 멋에 겨워 주책없이 늘어놓는다.

고향집은 약간 비탈지고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여 들에서 곡식을 지고 오거나 밤에 마실을 갔다 올 때는 골목길이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뒷산에서 무거운 나무라도 한 짐 해서 지고 올 때는 그래도 괜찮은 기분이었다.

집 앞의 개울 건너에는 넓고 기다란 논들이 자리하고 있어 겨울이면 달음박질로 연도 날리고 자치기도 하면서 더 없는 흙의 고마움을 입었다. 어디 그 뿐이라! 아름답던 들관위에는 앞산이라고 부르던 높은 산이 있었는데 봄이면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기도 하였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소 먹이는 온 동네 아이들이 소는 산중턱에 팽개치고 전쟁놀이, 살구반기, 비석치기, 씨름 등의 놀이에 빠져 정신없이 놀다가 해질녘 소를 몰고 내려 올 때면 학교에서 배웠던 동요나 월남 파병용사 홍보 노래들을 부르며 마치 개신장군이라도 된 듯 보부모도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10대 중반에 고향을 떠나 여태까지 객지에서 살고 있으니 고향에서의 지나간 짧은 세월이 더욱더 그리워진다.



옛그제 일처럼 새록새록 피어나는 추억을 더듬으며 고향길을 오르는데 우리 눈발이 있던 자리는 몰속에 잠겼거나 잡초만이 우거져 어디쯤인지 잘 알 수도 없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변해서 그 정취, 그 냄새는 만날 수가 없다. 우리에게 흥시를 선사하던 감나무는 얼마나 험한 세월을 겪었는지 쪼그라든 모습에 군데군데 저승꽃이요, 썩은 가지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약수터는 매워지고 주위에는 무성한 잡초들만 우거져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며, 소들이 꼬리질을 해가며 풀을 뜯던 산자락도 가시정글로 변해 버렸다. 불현듯 이은상님의 '옛 동산에 올라'라는 노랫말이 생각난다.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예 썼던 그 큰 소나무 버려지고 없구려 힘이 빠진 다리를 끌고 우리 발가로 왔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해거름에 곡식들이 자라는데 방해가 될까봐 돌맹이를 주워내고, 어머니께서는 우리 애 왔다고 단맛한껏 품은 맛있는 고구마를 캐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이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리워 찾아보고 불러 보아도 양상한 나뭇가지에 찬 바람만 맴돌 뿐 그님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대답도 없다.

돌아서는 발길에 아쉬워지는 가실골아!

한 아름 안고자 왔더니 빈손이구나, 필시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럴테지...

그러나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내 고향 가실골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다 야산 중턱 진달래꽃이라도 보게 되면 가끔씩 주책없이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

부모 섬김



백인재공파 25세 이형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도덕이다. 학력이나 사회적 경력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릴 것 없이 천지자연의 은혜, 부모의 은혜, 국가의 은혜 선생님, 친구의 은혜 등 다양한 인물과 인연의 고리를 맺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공경(恭敬)과 자애(慈愛)로 살아가는 관계를 하늘이 맺어주는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慈愛)의 가르침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익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하시며 조상으로 부터 이어오는 가풍(家風)을 지키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도움을 주신다. 또한 자녀의 삶에 있어서 정신적 지주(支柱)이며 지혜의 샘터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섬기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아들 딸로서의 도리이며 사람이 되는 조건인 것이다.

1. 오늘날 효도의 실상

현실의 사정은 핵가족 현상이 일반화 되었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자연히 외로워지고 경제적 어려움과 병고(病苦)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는 있으나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부모를 섬기려는 마음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 자녀들이 비록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더라도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시간이 나면 안부를 묻는 마음, 좋은 것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지(天地) 차이 만큼이나 크다. 즉 물질에 앞서 정신적 봉양 더 중요하므로 형식보다는 성실성을 꼽는다.

3. 부모 앞에서의 언행

부모 앞에서 자기 기본만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지, 기대였거나 어른보다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지 않았는지, 심지어는 예사로 다리를 뻗고 있거나 드러내는 행위는 없었는지,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씨는 자기 인격의 표현이다. 품위 있는 말과 신중한 행동은 그 사람의 무게를 가늠하는 잣대이며 사람 됨됨이의 그릇의 크기이며 웃어른을 섬기는 태도이다.

끝으로 부모님은 늙어서 몸이 젊을 때와 다르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항상 건강상태를 눈여겨 살펴서 병이 위중해지기 전에 신경을 써야 하며, 생각이 좁아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부드러운 말씨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될 수 있는 대로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형우제공(兄友弟恭)의 가풍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성되는 원초적인 가정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며, 부모님은 자식의 잘못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잊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집안의 내력



참의공파 25세 이준

어머니 49재를 지내지도 한 달이 지났건만 마음으로는 백일 천일재도 하였으면 한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선친도 더욱 마음에 사무치고, 삼십 오년 전에 떠나신 할머니도 더욱 그리다.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님 생각도 더욱 간절하다. 한때는 함께하여 꽃처럼 바람처럼 향기롭던 이들이 이제는 다만 바람의 전설이 되어 있다. 가버린 이들에 대한 심사가

이토록 간절한 것은 나만의 기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까닭이 있는지, 그 내력이 나 스스로에게 무척 궁금하였다. 반사적으로 이러한 까닭은 핏줄의 무엇이 있지 않을 까라고 생각하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구암 선생님의 일대기를 검색하였다. 여러 행적들 중 눈에 띄는 구절이 선생 39세 때 부친상으로 3년 시묘살이를 하였고, 시묘살이의 여파여서인지 병을 얻어 41세 때 공주목사에 제수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49세 때 우승지(右承旨)가 되어 임금의 명령으로 고향으로 가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이때 명종 임금이 경상감사에게 글을 내려 '승지 이정이 노모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니 먹을 것을 넉넉히 공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는 구암 선생이 평소 나라를 생각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충효의 성품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간절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라하는 것이라 하였다. '맛아 우리 동성 이가 일족의 부모를 그리는 심리적

정서적 원형(原型)은 이것일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들었다. 반사적으로 2002년도 사천문화원에서 발간한 구암집을 펼쳐보았다. 물론 구암 선생님이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 일족의 마음 밭의 모습을 유추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이다. 몇 가지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효심이다. 구암집 천 제2권 행장의 내용을 유추하여 보건대 우리 집안의 내력은 효심이 지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람들을 향하는 자애로운 마음이다. 스스로의 덕을 기른다는 것(養德)은 곧 다른 사람들을 기르는 것(養人)이다. 이런 기본 마음 때문에 우리 일족은 마음이 여려서 남의 말에 쉬 속고 현혹되고 손해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 하다.

셋째,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일단 벼슬길에 나가 가면 백성들이 편안하고 만족하였다.

넷째, 임금에게 쓴 소리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섯째,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상은 구암집 천 73면에서 88면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추려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집안의 문집들에 있는 내용들과 유사할 수 있고, 또 그 구체적인 정황과 그 문맥의 실질적인 내용은 더 깊은 연구를 통하여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일들이지만 이러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구암 선생은 60세 되던 해(1571년) "내가 세상에 나서 목숨을 부지한 것은 부모의 덕인데 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몸을 상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불효가 아닌가"라고 탄식하면서 정점으로 옮겨 세상을 떠났다. 선생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부모님을 그리워하였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돌아가신 어버이를 사무치게 그리는 것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 아닌가 한다.

도톤보리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내거리를 구경한 우리 일행은 지하철을 타고 호텔까지 이동했습니다.

4. 셋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하기 전에 호텔주변을 한 바퀴 산책했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는 경정장(競艇場)이 있고, 대각선 방향으로 신사(神社)와 공원이 있었습니다. 신사에 가까이 갔더니 오사카호국신사(大阪護國神社)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물장병들을 안치한 신사인 듯 안으로 들어갔더니 일본의 청황부부와 황태자 부부가 참배했다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2차대전 후 해체된 각종 부대의 기념비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하여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태도와 겹치면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신사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걸으니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넓은 부지에 숲과 호수, 야구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되어 있었고, 나이 든 주민들이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가. 오사카성

아침식사를 마치고 맨 처음 찾아가는 오사카성은 나고야성, 쿠마모토성과 함께 일본의 3대 성 중 하나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오사카성은 1583년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본 천하를 통일하여 전국시대를 끝낸 것을 기념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에 의하여 불탄 혼간지(本願寺) 자리에 쌓기 시작한 성입니다. 그러나 히데요시가 죽은 후 정권을 잡게 된 도쿠가와(徳川) 가문에 의해 1615년 오사카성은 함락되고 토요토미 가문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너지고 불탄 오사카성은 1620년 도쿠가와 가문의 2대 쇼군(將軍)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재축되는데, 그 규모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쌓은 성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 시작되기 직전 일어난 막부와의 내전으로 많은 건조물이 소실되어 1931년 시민들의 기부에 의하여 현재의 천수각이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천수각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8층 전망대로 바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관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되어 있는 내용



1615년 오사카성 여름전투 모형과 그림



오사카성 천수각

은 대부분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원흉인데다가 얼마 전 영화 '명량(鳴梁)'을 본 뒤 끝인자리 가슴속에 미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나. 동대사(東大寺)

교토(京都)를 대표하는 절이 청수사(清水寺)라면 나라(奈良)를 대표하는 절은 동대사(東大寺, 도다이지)입니다. 동대사에는 세계 최대의 청동좌불상이 안치되어 있고 청동대불이 있는 대불전은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성에서 나온 우리 일행은 점심을 마친 다음 동대사로 향했습니다. 동대사 앞에는 1200여 마리의 사슴을 방목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사슴을 만져볼 수도 있고 사슴에게 센베과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슴공원을 지나 동대사의 남대문(南大門)에 이르니 "대화엄사(大華嚴寺)"라는 편액이 붙어 있었습니다. 동대사가 일본 화엄종의 대본산이라 이런 편액이 붙었다고 합니다. 남대문을 지나 가면 중문(中門)이 나타납니다만, 중문으로 들어가자 못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회랑을 돌아 가면 대표소가 나타나고



동대사 남대문



동대사 대불전

가면 대불전이 보입니다. 이날 아침 이곳에서는 불교의식이 있어 스님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본의 스님들입니다. 일행은 대불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대불전 안으로 들어가 불교의식과 함께 청동대불을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동대사에는 대불전 이외에도 이월당(二月堂)과 삼월당(三月堂)이라는 유명한 건물이 있고, 각종 보물들이 있는 정창원(正倉院)이 있습니다만, 여행일정상 그 두 곳은 생략하기로 하여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다. 법릉사(法隆寺)

우리 일행이 마지막으로 간 곳은 법릉사(法隆寺, 호류지)였습니다. 법릉사는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그린 금당벽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비록 담징의 금당벽화는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일본의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하더라도 약 190종 2,300여점이나 된다 하니 법릉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동대사 앞의 사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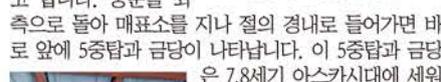
동대사 청동대불

입니다. 법릉사는 1993년 일본 문화재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법릉사 남대문

법릉사는 서원가람(西院伽藍)과 동원가람(東院伽藍) 및 대보장원(大寶藏院)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임장권도 이 세 곳을 모두 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릉사의 정문인 남대문(南大門) 앞에는 소나무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버스주차장에 내리면 그 소나무 가로수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름다운 소나무 절 앞을 엄숙하게 지키고 있어 절집으로서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남대문을 지나면 2층 목조건물인 중문(中門)이 나타나고 그 뒤로 5층탑의 윗부분 일부가 보입니다. 이 중문은 아스카시대의 건물로 일본의 국보라고 합니다. 중문을 좌측으로 돌아 대표소를 지나 절의 경내로 들어가면 바로 앞에 5층탑과 금당이 나타납니다. 이 5층탑과 금당은 7,8세기 아스카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5층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탑으로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층탑으로 유명하고, 금당은 본존이 안치된 불당으로 그 안에는 성덕타자를 위해 건조된 금동석가삼존상과 태자의 부왕인 요메이(用明)천황을 위해 건조된 금동약사여래좌상 등이 있으며, 유명한 금당벽화가 있습니다(1949년의 화재로 현재는 모조벽화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5층탑과 금당의 1층에는 마치 덧댄 것처럼 속지붕이 있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상계(裳階)라고 하여 지붕을 보완하는 의미라고 하는데 후대에 덧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5층탑의 4면에는 소조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중 북면에는 유명한 부처님의 열반장면이 있습니다.



법릉사 중문



법릉사 5층탑과 금당



법릉사 동전

으로 대보장원(大寶藏院)이 있습니다. 대보장원은 근래에 새로 지은 건물로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그 아름다움을 극찬한 백제관음(百濟觀音, 구다리관음)을 비롯한 동유관음상(夢違觀音像, 유메지가이관음상), 옥충주사(玉蟲廬子) 등 법릉사의 각종 문화재를 보관,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진으로는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대보장원을 나와 동쪽으로 가면 동원가람이 나옵니다. 동원가람은 성덕태자의 초상을 모신 불원으로 몽전(夢殿, 유메도노)이라는 팔각형의 건물이 핵심입니다. 몽전은 성덕태자가 살았던 이카루가(斑鳩宮)에 교신(行信) 스님이 태자를 그리워하며 739년에 건립한 건물이라 합니다. 몽전을 돌아 나오니 사리전과 종각건물이 있습니다. 12-13세기경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건물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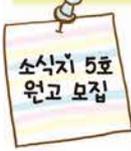
동원가람의 관람을 마치고 법릉사 경내를 벗어나 나오는데 평산(平山)이라는 문패를 달고 있는 주택을 만났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으로는 평산(平山)이라는 성씨는 우리나라 평산신씨(平山申氏)의 후손 중 어떤 분이 일본으로 귀화하여 만든 성씨라고 하였습니다.

라. 다시 공항으로

짧지만 알찬 2박3일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간사이(關西)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우등으로 저녁식사를 해결한 뒤 부산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5. 마무리

이렇게 2박3일간의 오사카, 나라, 교토의 역사탐방 여행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대사를 좀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일본의 전통문화의 원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소식지 5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하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소식지의 성격** :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으로 여겨 보고 싶습니다.

- ▶ **원고의 장르** : 각 문종의 선조 또는 자손 이야기, 기행문, 수필, 시, 사진, 편지글, 논설, 종인들의 소식, 대중회 운영 현황 등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4호 발행 일시** : 2016년 3월말, 대중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중회 사무국
- ▶ **원고 보낼 곳** : e-mail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무랑공파 24세)

새 족보에 관한 생각 (선무랑공파 파보 제작과 관련하여)



이영근 (선무랑공파 24세)

우리 선무랑공파는 집안에 따라 1998년도 대중회 대동보(족보)를 만들 때 참여하여 족보를 갱신한 집안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은 집안이 있어 그 족보내용이 들쭉날쭉하여 불실한 형편에 있다. 참여하지 않은 집안은 1973년도 대동보(족보)를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난 40여년간의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갱신한 집안이라 하여도 1998년 대동보(족보)이후 17년간의 세월에 더 태어나고 돌아가심의 변화가 있어 새로운 족보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침 족보를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나, 자료를 입력만하면 족보의 형태로 쉽게 출력되어지므로 작업하기가 한결 수월하게 된다. 그동안 1998년 대동보(족보)의 선무랑공파의 내용을 컴퓨터에 모두 입력

하였다. 이제는 옛날 할아버지 시절과 달라 구전을 기록하는 초단이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에 등재된 자료를 이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등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다 함께 참여하여 한쪽 뿌리가 떨어진 족보가 되지 않도록 동참하여 주기를 바랄 뿐이다. 시간이 흐르면 대동보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동보는 혼자 힘으로 또 얼마간의 재원으로서는 힘 든다. 물론 지난번의 사업보다는 재원에서는 나올 수 있다. 그 때는 시조사옥 건설과 맞물려 있었기에 대단한 역사였다. 새로운 대동보를 위하여 조만간에 연구팀이 구성되고, 위원회가 조직-후원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3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4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5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6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3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4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5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6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7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4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5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6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7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8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5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6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7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8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
9	世	子世芬	子世芬(1910-1980) 1910년 1월 15일 생, 1980년 1월 15일 사. 장남 1명, 딸 2명. (자세한 족보 내용 생략)